

로저 그린 박사, 종교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6, 칼빈의 신학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교회사 과정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의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칼빈 신학에 대한 6번째 세션입니다.

그러니 여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주님, 우리는 다시 멈추고, 또 다른 주를 시작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서로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이
자료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에 적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통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충실하고,
성경에 충실하고, 당신의 교회에 충실하고,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충실한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존 칼빈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업에서의 토론뿐만 아니라 오늘과 이번 주 내내의 모든
수업과 고든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로 인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습, 서로의 교제,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개인적으로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성장, 그런 종류의 성숙에 우리를 돕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번 주 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당신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좋아요, 좋은 주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강의, 존 칼빈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삶을 다루었고, 그다음 그의 작업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다음

그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시켜 드리지만, 그의 신학에 대한 꽤 긴 소개를 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관과 기관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이고, 그가 기관을 형성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해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그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의견이 다른 신학적 문제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처럼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 개혁 운동으로 옮겨갔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제 삼은 특정한 문제, 특정한 것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인류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에 대한 교리, 신에 대한 그들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의 이해에 따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소명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모든 신자의 신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구분했어요.

맞나요? 다들 알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가 목사, 즉 직업상 목사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역할을 매우 존중했고, 등등.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 목사-교사 직책과 집사 직책입니다.

우리가 그걸 언급했나요? 우리가 그걸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끝낸 곳이에요. 그게 우리가 끝낸 곳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그게 우리를, 우리는 여전히 4번, 즉 교회 교리에 따라가고, 그게 우리를 성례전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아래에 있고, 그는 교회에 대해 말할 때 성례전의 본질을 다루어야 합니다 .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예정론과 두 왕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아요, 성례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칼빈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일곱 가지 성례전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트렌트 공의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회가 지금까지 일곱 가지 성례에 대해 거의 확정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일곱 가지 성례가 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칼빈은 두 가지 성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례 성사가 있고, 주님의 만찬 성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두 가지 성사입니다. 이제, 그는 왜 성사가 두 가지뿐이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요.

성경에 근거하여 그는 성경의 다른 다섯 성례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근거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성례의 수에 관해 교회와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례전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혁 전통, 개신교 전통에서 성례전에 관해 그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츠빙글리였습니다. 그는 성례전에 대해 중간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성례전 개념, 특히 주님의 만찬과 츠빙글리의 성례전 개념, 특히 주님의 만찬 사이의 중간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츠빙글리는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세례와 성만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 츠빙글리파 쪽에서 츠빙글리는 성례전을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상징입니다.

우리는 상징으로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상징으로 성만찬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상징적일 뿐이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세례와 성만찬이 단순히 세례와 성만찬이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츠빙글리와 논쟁합니다. 또한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련하여, 주님의 만찬과 관련하여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논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에서 츠빙글리는 그것이 단지 상징적이라고 믿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찬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제가 축복을 선언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성찬례에 대해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체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성체 변화는 물질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고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외부적입니다. 빵 냄새가 나고, 빵 맛이 나고, 빵처럼 보이고, 와인 냄새가 나고, 와인 맛이 나고, 와인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우연입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빵과 와인의 외형입니다. 그것이 빵과 와인의 외형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바뀌었고, 그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중간 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우리가 아마도 이야기했거나 앞서 언급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스콜라주의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 로마 가톨릭의 실체 변화 개념은 스콜라 철학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성체 변화를 성경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다시 어떤 성경적 교리에 대한 단순한 철학적 추론의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례와 성찬을 고려하지만, 확실히 츠빙글리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취합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각각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 세례에 관해서, 칼빈에게 세례는 새로운 공동체에 입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됩니다.

당신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례는 칼빈에게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경험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둘러싼 공동체이고 당신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양육하기로 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칼빈에게 매우 중요했고, 그것은 입문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만찬에 관해서, 그는 주님의 만찬에 관해서 츠빙글리와 루터 사이에서 약간 중간 지점을 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만찬에 관해서, 츠빙글리에게 그것은 단지 기념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지, 칼빈에게는 아닙니다. 칼빈에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칼빈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만찬에 임재하셨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이 루터와 어떻게 다르니까? 루터는 주님의 만찬에서 그것을 가르쳤고 , 여러분 중 일부는 모든 전통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루터교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교 배경이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당신이 주님의 만찬을 취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의 만찬을 취하는 그 행위에 당신과 함께 거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현존하십니다. 그는 온전히 현존하십니다.

루터에게는 주님의 만찬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현존이 있습니다. 좋아요. 칼빈이 와서, 글썄요, 저는 츠빙글리와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단순한 기념관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루터와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루터와 의견이 다른 이유는 칼빈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히면서 성찬례나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앉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에 관해서, 칼빈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칼빈은 주님의 만찬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면전으로 데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을 추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학자처럼 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에 따르면, 당신이 주님의 만찬을 취할 때, 당신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임재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개혁자들 사이에서 약간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츠빙글리 사이에서 약간 중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념일 뿐이고, 루터와 그리스도는 내려왔습니다. 칼빈은 아니요, 저는 여기 사이에 서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데려갔다고 말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 성례전은 칼빈에게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숫자 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의견이 다르고, 성체 변화의 모든 면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의견이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세례가 무엇이고 성만찬이 무엇인지를 재구성합니다. 좋아요, 그게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이고,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교회 생활, 교회의 직분, 교회의 성례전, 그런 종류의 것에 대한 그의 생각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네.

네. 칼빈에게 세례는 새로운 공동체로의 입문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아이에게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루터가 믿었던 것처럼 유아 세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증언하고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일종의 입문이죠. 그게 도움이 되나요... 네.

이제, 장로교 배경에서 왔다면, 칼빈주의 배경에서 왔다면, 아마도 유아 때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나요? 좋아요.

글쎄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예정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존 칼빈과 함께 이야기했으니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교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두 왕국 교리로 넘어가기 전에 이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러기 전에, 저는 반을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쪽에 훌륭한 여성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럼, 반을 반으로 나눠보죠. 그리고 저는 이것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예정론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반은 반으로 나뉩니다. 좋아요. 이쪽에서는, 여러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고 구속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창조 전에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을 운명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중 선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기뻐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당신은 이 군중 속에서 기뻐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이 기뻐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저주하신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너무 투덜거리기 때문에 그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이제, 이 집단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신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태도는 저주를 받도록 선출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보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을 다시 한데 모아서, 여기서 계층을 나누지 맙시다. 하지만 그것은 이중 선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까요? 저는 우선,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서론적 발언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예정론의 절대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서론적 발언입니다.

첫째, 이것은 칼빈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정론에 대한 교리로 존 칼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 중 일부는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교리로 칼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리는 실제로 연구소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그의 선거 교리에 도달하기 전에 수백 페이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 이 교리만으로 칼빈을 판단하지 마. 다른 훌륭한 교리들이 있고, 등등.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좋아요. 두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세인트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 선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예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정, 구원받을 사람들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단일 예정이었습니다.

좌파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방치 되었습니다 . 그들은 칼빈이 가졌던 이중 선거에 대한 날카로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등장해서 그는 어거스틴을 믿습니다.

그는 루터를 믿는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이것을 날카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을 더 명확하게, 더 성경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나 루터의 선거만이 아니라 이중 선거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해요.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이 교리에서 칼빈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고, 예정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세 가지 발언을 한 후, 여기서 예정론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칼빈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선출된 사람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는 완벽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예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선거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누군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선거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정론을 믿으려면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선거의 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선거가 믿음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존 칼빈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가 믿음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글썄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선출되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선거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선거는 믿음과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선거가 먼저 오고, 믿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따릅니다. 따라서 칼빈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택함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은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매우 친절하며, 칼빈에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좋아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교리 자체입니다. 선거와 선행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글썄요, 칼빈에게 선거는 선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선출된 사람은,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반을 가리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을 모두 하나님의 선한 성도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출된 사람은 선행으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거나, 좋은 사람들이거나 그런 이유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들이 선출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그 선거에 선행이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행을하기를 원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칼빈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체 고해 제도를 매우 심하게 공격한 곳입니다. 그는 그 전체 고해 제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은총에 머물기 위해 선행을 하는 일종의 선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선행은 함께 하지만 결과적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선행은 선거를 따릅니다.

교리에 대한 칼빈의 또 다른 점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이 택함받은 자 중 하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는 그것을 그의 언어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확신할 수 있고, 그 답은 성령의 증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성령의 증거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선택 교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확신의 교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확신의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의 느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교리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것으로 돌아가 봅시다. 종교 개혁의 전투 구호 중 하나는 무엇이였을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 하지만 다른 하나는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중세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칼빈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합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증거는 매우 매우 중요해집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말했지만, 이 교리 전체에서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왜 저주받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했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신에 반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류는 신에 의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구원에 선택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환상적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 선택 교리 전체에서 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항,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한 종류 등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정은 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가 명목론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명목론과 철학을 기억하고, 그는 어떤 면에서 명목론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교리로 그는 명목론과 결별했습니다. 그가 명목론자들과 의견이 다른 한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어떤 종류의 신학적 명목론자들과 그가 그들과 결별한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기일 것입니다 . 그것은 여기 선거 교리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과 결별하는 유일한 곳은 신의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의 뜻이라고 가르친 명목주의자들입니다. 신의 뜻은 신의 뜻이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옳습니다. 그것은 신의 뜻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칼빈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아는 이유는 그것이 정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비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칼빈에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명목론자가 말했듯이 신의 뜻은 신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옳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하고, 아니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예정과 선택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명목론자들과 결별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더 성경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신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명목론자들은 임의적인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은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일종의 임의적 신. 칼빈에게 신은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는 임의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거와 예정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일종의 임의성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칼빈은 그것을 헛된 추측이라고 불렀습니다.

추측 의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 당신은 그것을 전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선거와 예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선거와 예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칼빈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선거는 먼저 온다. 선거는 먼저 온다. 그는 구원받을 자들을 선출한다.

그는 멸망할 자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할지를 미리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멸망할지를 미리 아신 것처럼 취급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으로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러므로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지가 먼저 오고, 그가 예지하기 때문에 선출한다고 말합니다. 칼빈은 아니요, 그것은 역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은 선거가 먼저 오고, 그가 지금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지하는데,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선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칼빈의 선거 교리에 만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칼빈이 가르친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선거 교리에 대해 특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왜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선거 교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좋아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시대에도 이 교리에 반대하는 세 가지 주요 주장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주장은 칼빈의 추종자 중 한 명인 테오도르 베자가 대표합니다.

로 넘어가겠습니다 . 첫 번째는 베자가 칼빈 이후 두 번째 세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 번째 세대의 개혁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자의 선거 교리입니다.

아래를 보세요. 테오도르 베자의 다이어그램은 인간 구원의 논리적 순서를 나타내며, 선거에 대한 신의 명령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두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냥 그걸 보면, 그게 교회 좌석에 앉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목회적이고 성경적인 선거 이해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독하려면 영원히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예정론은 바로 거기로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칼빈은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스콜라주의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중세 세계입니다. 아시다시피, 핀 머리 위에서 얼마나 많은 천사가 춤추는지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가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의 추종자들은 그 교리를 매우, 매우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목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라틴어로 쓰여 있고 기타 등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칼빈이 멀리하고 싶어했던 바로 그 것이 스콜라주의였고, 예정론을 옹호하려던 그의 사람들이 빠져든 바로 그 것이 스콜라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즈가 교리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게 가장 큰 비판입니다. 좋아요, 칼빈이 교리에 대해 당시에 한 두 번째 비판은 그가 교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확신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저주받은 자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구원받은 자 중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 결국은 신만이 알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그다지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한 좋은 역사적 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예정론을 믿었을 때, 마틴 루터가 자신과 관련된 예정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그에게 전혀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저주받은 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터 자신이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칼빈이 이중 선거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루터 자신이 교리를 가르쳤지만, 그는 자신이 저주받을 사람으로 선출되었다고 느낍니다. 루터에게는 아무런 확신도 없습니다.

이제 루터는 다른 방식으로 신을 찾아야 했지만, 루터에게는 거기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칼빈은 그것이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칼빈 시대에 시작된 세 번째 비판은 그의 종류였습니다. 이중 선거를 장려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신을 이해합니까? 이것이 성경의 신입니까?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신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선출하고, 사람들을 저주로

선출하고, 그들이 응답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일을 하는 신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칼빈이 묘사한 신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온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이었고, 우리는 그 반응들이 다음 세기인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볼 것입니다. 좋아요,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어딘가에서 칼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곳은 선거를 가르치지 않는 로마 가톨릭의 개념, 즉 자신 안에 있는 최선을 다하면 신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로마 가톨릭의 개념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여기서 멈추고 노트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노트북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우리는 칼빈에 대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한 가지. 칼빈의 두 왕국 교리입니다.

좋아요, 두 왕국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두 왕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우리가 사는 시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서 그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당신은 당신이 살고 있는 시민 정부를 갖게 됩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적인 왕국, 즉 인간의 왕국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빈이 보기에 이들은 두 개의 별개의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 즉 신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은 두 왕국의 저자이지만,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혼동시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세레파로 알려졌습니다. 재세레파는 두 왕국을 하나로 모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것이었고, 재세레파에게는 시민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두 왕국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왕국 모두 신이 정해 놓으신 것이지만, 그 왕국들을 혼동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두 왕국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제, 칼빈이 인류 왕국에 관해서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이 일상 세계에서 살고, 시민 정부 아래에서 살 때, 그리고 그는 시민 정부 아래에서 살았을 때,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은 시민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복종입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시민 정부에 너무 복종해서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는 무정부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이해하기 꽤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 안의 삶,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 칼빈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류의 왕국에 대해서는, 그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그가 관련된 한, 우리는 시민 정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칼빈에 관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선, 그가 보기에 시민 정부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그는 우리 시대, 우리 세상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정부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시민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민 정부의 일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공공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알겠어요?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사람은 누구였나요? 칼빈이었나요 아니면 시민 정부였나요? 시민 정부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이유로 그랬을까요?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이단은 공공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좋아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좋아요, 이제 칼빈이 생각한 정부의 두 번째 기능은 종교적 기능이었습니다.

정부도 종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이 제네바로 돌아온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종교적 기능을 정리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기능에서 정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신성모독이나 모독, 모독, 또는 그런 것들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칼빈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심지어 교회의 공적 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교회의 공적 구조를 어떻게 확립합니까? 세금을 징수하고, 건물을 짓고, 목사를 고용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럽의 많은 나라들, 유럽에는 여전히 공공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를 짓고, 목사를 고용하는 등의 목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교회를 짓고 목사를 고용하고 목사에게 급여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에서 칼빈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현대 세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럽에는 여전히 교회를 짓고 목사에게 급여를 지불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서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가 보기에, 그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월요일에는 5초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수업이 있는 분 있나요? 있잖아요, 루스, 축복합니다.. . 보세요, 그거 좋지 않나요? 8시 수업, 9시, 10시 수업이 있잖아요.

예배에 갈 때쯤이면 두 개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걸 기뻐하죠.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좋아해요... 다른 사람 8시 수업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8시 수업이 없어요? 알겠어요.

당신은 일류예요? 좋아요, 알겠어요. 5초 동안 스트레칭하고, 쉬고, 스트레칭하세요. 우리는 휴식 시간을 기록하고 있나요, 테드? 아니면 그것을 알아낼 수 있나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람들, 학생들에게 휴식할 시간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아, 그럼 잘 지내 ? 알았어. 이제, 인류 왕국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야. 그가 시민 당국이라고 부르는 게 많았어.

치안판사, 왕자, 판사, 법 집행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빈 시대에는 많은 시민 권위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선출된 권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를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가문에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직책들은, 아시다시피, 판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하지만 여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칼빈이 당신이 그래야 한다고 느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정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시 당국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섭리로 그곳에 있습니다. 신이 그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종류의 일, 즉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 종교적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우연히 당신이 하느님, 축복합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시민적 권위 아래 있다면, 칼빈은 당신이 복종해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꽤 못된 시민적 권위 아래 있다면, 어쩌면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하고, 여전히 그 권위 아래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Calvin은 Institutes를 끝내는 이상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Institutes가 끝나면 Avengers가 와서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가 정치인들에게 준 자리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는 그들에게 매우 높은 지위를 주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신의 섭리에 의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준 자리에 대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알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여기에 정치학 전공자가 있습니까? 글썄요, 우리는 공직자들을 알보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글썄요, 칼빈은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칼빈은 그들이 신의 섭리에 의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을 매우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우리 시대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칼빈에게서 조금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이에 대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정의로운 전쟁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전쟁을 허용했습니다. 그는 이 점에서 훌륭한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입니다.

그는 어거스틴처럼 믿고 루터처럼 믿는다. 그는 정부가 폭력적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는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정의로운 전쟁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칼빈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화주의자였던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칼빈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시민 정부, 시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 정부와 신의 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선택을 해야 했다면, 그런 종류의 선택이 있었다면, 당신은 항상 신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우연히 선택이 있다면,

당신은 항상 신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러면 신의 법을 따르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선택을 강요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신의 법을 따릅니다. 양심상 시민법을 따를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항상 시민법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두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칼빈을 위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 일상의 세상에서 살고 있으며, 이 일상의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두 왕국 교리는 이겁니다. 여기서 몇 분간 존 칼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칼빈의 삶, 칼빈의
업적, 칼빈의 신학, 우리가 존 칼빈과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것이든요? 그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는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시작한 종교 개혁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종종 종교 개혁 중에 나오는 주장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칼빈에 대해 여전히 미스터리한 것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칼빈이 가르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교리가 주요 교리입니까? 이 과정에서 칼빈에 대한 전체
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이러한 내용을 더 깊이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그의 시대에 진정으로 통하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의 주요 교리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의 시대에 통하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답하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모든 교리를 다 다루지는 않지만, 그의 주요 교리의 하이라이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용하는 교과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 그는 연구소에서 이것들 각각을 논의하는 데 오랜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 캘빈? 아니요? 금요일 아침 식사 때 그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게요. 존 캘빈. 좋아요.

글쎄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3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시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강의 3. 그리고 이 강의는 종교 개혁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응입니다. 종교 개혁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응.

파워포인트를 바꿔야겠어요. 종교 개혁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대응은 종종 반종교 개혁 또는 가톨릭 종교 개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반종교개혁 또는 가톨릭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제, 여기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제가 이걸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저는 종교재판에 대해서만 언급할 겁니다.

예수회의 예수회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 개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트렌트 공의회를 언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왜 이 세 가지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요? 이 세 가지를 통해 제가 하는 일은 로마 가톨릭의 종교 개혁에 대한 보다 본능적인 반응인 종교 재판에서 예수회 설립으로 좀 더 절제된 반응으로, 그리고 18년이 걸린 트렌트 공의회라는 훨씬 더 절제된 반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나요? 우리는 본능적인, 개신교도를 죽이는 것에서 더 관리하기 쉬운 예수회로 옮겨가고, 종교 개혁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내기 위해 18년 동안 훨씬 더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종교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종교재판 . 먼저 종교재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종교재판은 교황이 이단을 다루기 위해 설립한 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종교재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단을 다루기 위해 교황이 설립한 재판소입니다.

종교재판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레고리 9세였고, 그가 통치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니면 교황 1227년에서 1241년 사이였습니다. 종교재판 위원회라고 불리는 것을 만든 사람은 그레고리 9 세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 날짜를 보면, 그때가 그가 교황이었던 때입니다. 그 날짜를 잠깐만 보면, 잠깐만요, 이건 종교 개혁보다 200년 전이에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 재판 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 사실, 종교 개혁 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칼빈에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 전이 진행 중이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교황은 그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도전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매우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9세는 내가 종교재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단을 다루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단이 주변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가 이단으로 간주한 것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대, 종교 개혁보다 앞선 것입니다.

좋아요. 알았어요. 이제, 그들의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 사람들이 마을에 이단자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들어갔을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위원회의 심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문 위원회는 여러분의 마을로 올 것입니다.

좋아요. 그들이 할 첫 번째 일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모으는 엄숙한 집회가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엄숙한 집회에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 이단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이단자임을 고백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라고 자백하면, 당신의 처벌은 가벼울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2, 3, 4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재판 위원회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일은 물론, 마을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알죠?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기간이 끝나면 마을 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이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조금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레고리 9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1252년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52년에는 고문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단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고문을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고문해서 이단자라고 자백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명의 증인만 있으면 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유죄 판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마을에 있는 이단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좋아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단자들을
국가에 넘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할 것인가? 아니, 그건 교회의 일이 아니다.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다. 국가의 일은 공공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단자들은 공공 생활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단자들을 주 관리들에게 넘기면 주 관리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화형에 처하거나, 우리는 세르베투스가 200년 후
제네바에서 화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이단자로
선언되지만 다른 종류의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구타 등, 공개 구타.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 이를 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 재판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해졌어요. 좋아요, 이제 클레멘트 7세가 올
시간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멘트 7세가 교황이었던
날짜입니다. 클레멘트 7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클레멘트 7세가 옵니다.

그레고리 9세와 비교한 그의 날짜를 주목하세요. 우리는 200년 후, 거의 3
00년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클레멘트 7세가 등장했고,
종교 재판은 쇠퇴했습니다.

종교재판은 그 300년 동안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클레멘트 7세가 등장했을
때, 그는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클레멘트 7세가
종교재판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종교재판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은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그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칼빈 신학에 대한 6번째 세션입니다.